

日 경제보복... ‘노 재팬’ 급속 확산

<NO JAPAN>

유통업계·소상공인 日 제품 판매 금지 속속 동참
“너무 화나... 일본 손님 안 받는다” 음식점도 등장
日 여행 문의 급감... 예정 교류행사 무기한 연기

“일제 강점기 때 그렇게 뽕쓸짓을 해 놓고선 지금도 이런 식으로 경제 보복을 한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일본 손님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한 노 재팬(NO JAPAN)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을 넘어 일본 고객을 받지 않는 곳까지 생겨났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횡집을 운영하는 박모(55)씨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겨냥해 “Abe out! 우리집 오지마”라는 현수막을 가게 앞에 내걸었다. 이 횡집은 3주전부터 일본 손님에게 음식을 팔지 않고 있다.

현수막에는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 대첩 때 적의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이제 그만 돌아가라’는 취지의 시구절과 ‘을지문덕이 아베에게 시를 띄우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박씨 부인은 “일본 손님을 안받아도 되겠느냐며 주변에서 만류하기도 했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너무 화가 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면서 “일본 손님 감소로 인한 매출 타격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는 ‘노 재팬’ 운동 방식은 일본 제품 판매 금지다. 하귀, 한림 등 도내 주요농협 하나로마트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한 지난달 첫째주부터

일본산 과자와 주류, 조미료 등 일본 제품을 모두 매대에서 빼냈다.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김동주 장장은 “일본이 지난달 4일 1차 경제보복을 하자마자 회의를 열어 일본 제품 발주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일본산을 대체할 국내산 제품의 소비 비중이 높고 있어 전체 매출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도내 10여곳 중소마트들도 지난달부터 일본 제품 판매 중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약국 업계도 노 재팬 운동에 동참했다. 제주도약사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해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산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일본 여행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주도공무원 노조와 성산포연승선장협의회가 기자회견 또는 현수막을 통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서귀포시

는 일본 자매도시 기노가와시와의 교류사업인 중학생 홈스테이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또 일본 여행을 취소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제주 여행 경비를 지원하거나 매장 방문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드는 반면 제주 등 다른 근거리 여행지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G마켓과 옥션은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일본 항공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감소한 반면 제주지역 호텔 매출은 지난해보다 131% 성장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또 그달 제주를 찾은 내국인은 1.7% 증가했다.

도내 H여행사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일본 여행 문의가 급감하다 못해 한 건도 들어오 있지 않다”면서 “일본 여행 스케줄 자체를 꾸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잡음 이어지던 휴양콘도 영업정지

서귀포시 “시정명령 이행 의지 없다... 1개월 정지”

속보=수분양자와 사업자간 갈등(본보 7월 12일자 3면 보도)이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관광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인 씨사이드아덴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귀포시는 씨사이드아덴 사업자 측에 1일 영업정지 1개월(8월 14~9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시의 행정처분은 휴양콘도를 분양받은 공유자와 회원 모두에게 알려 공유자대표기구를 구성해 객실이용 계획서 수립 등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씨사이드아덴은 지하 4층, 지상 5층에 190실 규모의 휴양콘도로 2018년 2월 준공돼 올해 4월 관광숙박업으로 신규 등록했다. 현재 190실 중 90여실이 중국인 등 외국인과 일반에 분양된 상태다.

씨사이드아덴을 둘러싼 논란은 사업자가 휴양콘도를 분양하면서 ‘주거형’으로 홍보해 주거용으로 오인 소지가 있고, 일부 수분양자들과는 객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어 수익금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일정비율

로 배분하겠다는 등 일반 수익형호텔처럼 운영을 약속하면서 불거졌다.

관광진흥법과 제주도관광진흥조례는 휴양콘도의 주거용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숙박업 업무편람에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해 관광사업자만 관광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휴양콘도를 분양받은 공유제·회원제 회원이 객실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돼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은 “주거용 거주도 안되고, 객실 위탁운영을 통한 수익배분이 안된다는 행정처분명령에도 사업자측은 행정제출용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 1개월 영업정지 사전예고에 휴양콘도 사업자들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1차 행정처분명령을 내린 후 지시사항을 이행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사업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영업정지를 내렸다”며 “영업정지기간에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3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이 기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등록익금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일정비율

원어민 강사 결핵 확진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의 원어민 강사가 결핵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초등학교에서 영어캠프를 진행하던 원어민 강사가 기침과 고열 증상을 보여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교육청과 학교측은 영어캠프를 중단시키고 해당 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영어캠프에 참가해 강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표성준기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잊지 않는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대학생, 청년 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을 앞두고 4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림일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평화나비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 전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대장정 마무리

3일 범국민평화문화제 개최

지난달 29일 강정에서 출발했던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제주시를 반 바퀴 도는 5박 6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등은 3일 오후 5시30분 제주시청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이번 행사를 마무리하는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범국민 평화문화제’를 개최했다.

대행진 참가자들과 제주시민단체,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해군기지 철수하라’, ‘제2공항 절대 안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주제2공항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한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강정 해군기지~서귀포~남원~표선~성산~구좌~조천~제주시청 코스를 도는 5박6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현석기자

신항만 건설 관련 찬·반 성명전

제주상의 “지정고시 환경”
환경운동연합 “국토 절단”

제주상공회의소는 정부가 2일 지정·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에 제주신항만 건설이 포함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제주신항만 건설은 그 동안 제주지역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온 숙원사업으로 선박 대형화 및 크루즈 수요 급증에 대비해 초대형 크루즈와 여객부두 일원화를 통해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해양관광 허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제 해양관광을 선도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2040년까지 투입되는 사업비만 2조8620억원에 이르는 데다 제주신항만 건설사업을 통해 2만9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와 물론

이고 생산유발효과 6조376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9666억원 등 경제적 효과가 큰 대형사업으로 제주가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앞선 1일 성명을 내고 “국토를 절단 내면서 비대한 토건산업에 혈세를 낭비하는 제주신항만 계획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신항 계획은 탐도의 8배를 매립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이라며 “제2공항 계획처럼 제주신항도 과대한 수치로 부풀린 관광객 숫자에 짜 맞춘 전형적인 대규모 토건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항 계획은 탐도매립 사례처럼 또다시 일부 거대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크루즈항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광산업의 양적 팽창만을 좇는 것은 도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금탁·김현석기자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
장기간 지급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